베니스비엔날레, 여성·반전을 말하다

홍경한의 시시일각

이탈리아에선 현재 127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 미술축제인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공식 개막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의 대장정을 이어간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3년 만에 문을 열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본전시와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관 전시를 축으로 한다. 본전시의 올해 주제는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로, 영국의 초현실주의 작가인 레오노라 캐링턴의 그림책 제목에서 따왔다. 초현실적 현실에 대한 역설, 현실과 비현실이 착종된 새로운 창조를 뜻한다.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는 과거 국영 조선소이자 무기고였던 아르세날레를 주 무대로 한다. 58개국 213명이 참가했다. 30대에서 17세기 독일의 삽화가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까지 고루 포진했다. 총감독은 세실리아 알레마니 뉴욕 하이라인 파크 예술총괄 큐레이터가 맡았다. 한국 작가로는 정금형과 이미래가 초대됐다.

국가관 전시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만 볼 수 있다. 카스텔로 자르디니 공원에 모여 있는 나라별 공간을 비롯해 본전시가 열리는 아르세날레와 베니스 시내 곳곳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여느 국제 미술전과 마찬가지로 베니스비엔날레 또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본전시 참여 작가 비율만 봐도 여성보단 남성 작가들이, 아시아나 라틴계보단 백인 작가들이 많았고, 줄을 서서 봐야 하는 인기 국가관들도 대개는 유럽과 미국관 등이었다.

하지만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의 키워드는 '여성', '흑인'이다.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최근 '경향신문'에 기고한 르포 제목을 아예 "남성 중심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다"라고 뽑았다. 그도 그럴 것이 비엔날레 작가 90%가 여성, 베니스비엔날레만의 특징인 황금사자상 수상의 영예도 여성작가들이 독차지했다.

2007년 말리 출신의 사진가 말릭 시디베가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받았으나 흑인 여성작가가 두 개의 황금사자상을 동시에 거머쥔 건 처음이다. 평생공로상 역시 여성 작가인 독일의 카타리나 프리치와 칠레의 세실리아 비쿠냐에게 돌아갔다.

예술에 있어 성별의 구분은 무의미하지만 여성의 실존성과 존엄, 정체성이 정당하게 가치 매김 되는 하나의 전환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작가들의 선전은 눈여겨볼 만하다. 역사에서 소외되고 억눌렸던 여성의 삶이 비엔날레라는 권위를 통해 재편됐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한편 외신을 종합하면 관람객에게 특별함을 선사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광장이다. 이곳엔 러시아 침공 이후 제작된 40명의 작가 작품이 들어섰다. 러시아 예술인들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끄럽다며 국가관 참가를 포기했다.

개막 초기엔 한국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나선(Gyre)을 주제로 한 한국관 전시에는 설치예술가 김윤철이 참여했다.

그러나 '시각적 놀라움'은 당대 인류가 처한 시대 징후를 다룬 작품에 후한 점수를 매기는 비엔날레의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던 듯싶다. 한 기자는 현장을 전한 보도에 "본전시 주제와 연결 짓기 쉽지 않아 보였고 문명의 성찰을 촉구하는 시대 흐름과도 이질적이었다."고 썼다. /미술평론가

1기 신도시 공약과 현실 사이

기자 수첩

양희문
〈파이낸스&마켓부〉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데다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냐 유지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인수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 과제로 다루겠다'고 했다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집값 상승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수시로 말 바꾸기 하는 새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실제 1기 신도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입발린 말만 하고 뒤통수 때릴 게 뻔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거냐." 등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새 정부는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경기 고양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제 또다시 말을 바꿀지 모른다는 점이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됐다.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층간소음, 녹물, 주차난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헌법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건 공급 확대가 유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즉, 단기적 집값 자극 우려로 인해 규제를 가하는 건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다. 윤석열정부가 이런 점을 숙지하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yhm@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4일 (음 4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지나간 실패에 머무르지 말자. **48년생** 깊게 담아 두지 말고 가볍게 생각. **60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빛날 수 없으니 고난을 이겨라. **72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답이 보인다.

37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49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6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한다. **73년생** 남을 비방하기보다 칭찬을 택해보는 것도. **85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다시 살피자.

38년생 작은 일이라도 신중히 처리하도록. **5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6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74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자. **86년생** 실패는 아프지만 실패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

3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51년생** 돼지띠 자녀로 길 선한 소식이 올 것. **63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75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87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 운은 있으니 다행.

40년생 반세기를 보넨 세월이 아쉽다 **52년생** 세계적인 트렌드나 열광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64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76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할 듯. **88년생** 삶의 중심에 양보의 배려를.

41년생 즐거운 하루가 되겠다. **53년생** 상갓집에 갈 때 백색보다는 다른 색상을 찾아라. **65년생** 외도의 진실을 알고 있어도 오늘은 침묵. **77년생**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89년생**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42년생 여유를 갖는 하루. **54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6년생** 잠을 이겨야만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78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90년생** 남 얘기를 시험대에 올리면 머리만 아프다.

43년생 믿음으로 일을 행하라. **55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91년생** 부모님 하는 일에 고목에 꽃이 피듯 곧 좋은 일이 있겠다.

44년생 기술이 익숙해도 가볍게 보지말자. **56년생** 구설수를 조심 특히 사돈과 대화에 주의. **6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80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92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45년생 가까울수록 이성은 멀리하라. **57년생** 주식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 **69년생**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마련이니 당황하지 마라. **81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93년생** 온실 속의 화초는 비바람에 약하니 세상을 보라.

46년생 집안청소를 시작. **58년생** 과음은 주의. **70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 **82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나가야 얻는다. **94년생**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탓하기 전에 자신의 처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발전될 터.

47년생 힘든 시기는 지난 것 같다. **5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71년생** 부적절한 이성과의 관계는 망신살이 올 수 있으니. **83년생** 인생사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싶다. **95년생** 삶에는 쉬운 일이 없을 것.

김상회의 四季

부처님 오신 뜻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는 음력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리고 있다. 석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1975년에나 와서 그것도 소송을 거쳐 얻어낸 결실인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처연해진다. 예수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에 비하면 당최 이해되기 힘들지만 전통 종교로서 불교신자가 상대적으로도 많았던 것만 생각해봐도 홀대도 그런 홀대가 없었다.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들에게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명제를 일깨웠다.

내가 하늘아래 혼자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 우주에 나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라는 일갈이다. 이 말은 모든 중생 각자 각자가 자기 인격의 존엄함을 알고 이에 걸맞은 마음살이를 하라는 뜻으로서 생명의 존엄과 고귀한 실존을 자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더할 나위 없는 사무량심을 베풀 것을 강조했다. 실존의 당사자 너나할 것 없이 무량한 자애심을 갖고 타자에 대한 자애와 연민만이 살아가는 등불이자 힘이 됨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宗敎)라고 사용되는 한자어도 불교 때문에 탄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도교와 유교가 있어 왔지만 불교가 중국에 소개된 이후에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이 여타 다른 가르침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가르침이라 하여 으뜸가는(宗) 가르침(敎)이란 뜻으로 표현한 데서 종교라는 단어의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는가마는 여래 십호에 함축된 의미처럼 스스로 바르게 진리를 깨달으시고 무명을 밝혀서 나아가게 된다. 그러기에 공양과 존경함으로 세존께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머리 숙여 예경을 올리는 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9
		2						
	3			8	6			
	7	4		1			5	
				5				
	6			9		7	8	
			4	2			9	
						6		
3					7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8	3	6				
	4		5					
3		4			8			
				5				
			2			3		8
					2		7	
				7	6	2		
	2					9		

정답

7	5	6	1	4	2	8	3	9
8	1	2	3	7	9	5	6	4
4	3	9	5	8	6	1	7	2
2	7	4	6	1	8	9	5	3
1	9	8	7	5	3	2	4	6
5	6	3	2	9	4	7	8	1
6	8	7	4	2	1	3	9	5
9	4	1	8	3	5	6	2	7
3	2	5	9	6	7	4	1	8

2	3	6	4	8	1	5	9	7
5	7	8	3	6	9	4	1	2
1	4	9	5	2	7	6	8	3
3	5	4	6	1	8	7	2	9
9	8	2	7	5	3	1	4	6
7	6	1	2	9	4	3	5	8
6	1	3	9	4	2	8	7	5
8	9	5	1	7	6	2	3	4
4	2	7	8	3	5	9	6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9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03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